

공사수주액 3년來 최저 ... 건설업계 경영위기 악화

도내 건설사 극심한 업황 부족

강원 건설업계가 코로나19로 극심한 '업황 부족'에 시달리며 뒤편을 맞고 있다.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로 기존의 건설공사가 줄줄이 연기·취소됐기 때문이다. 엮힌 데 달친 격으로 부동산시장 수급균형감 회복을 목표로 신규 주택 공급도 예년만 못한 수준을 보이면서 일선 건설사들의 경영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연이은 악재 탓에 도내 일반건설사들의 공사수주액 규모는 최근 3년 중 최소치까지 쪼그라들었다.

■ 건설수주액 2년 연속 감소=8일 강원 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올 1~5월 도내 일반건설사들의 건설수주액은 총 1조5,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 기간 기록한 1조6,466억원에 비해 3.8%(621억원) 줄어든 액수다. 평창동계올림픽 호재가 반영된 2018년(5조9,930억원)보다는 무려 73.6%(4조4,085억원) 급감했다. 올림픽 시설공사가 진행된 데 따른 기저 효과와 지난해 정부의 SOC 예산 축소 여파가 동시에 반영된 데다 올 들어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월별로 보면 올 1월(3,595억원)과 2월(3,155억원) 도내 건설수주액은 3,000억원대에 달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3월 들어 1,345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후 4월 민간 대형건축공사가 발주되면서 4,411억원대로 뛰었고 5월 3,336억원으로 또다시 하락 전환했다. 이처럼 심각한 수주난에 강원도와 건설업계가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일감 확보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관계자는 "최근 도를 비롯, 각종 건설 유관기관들과 합심해 지역업체 자재·인력·장비 우선 사용을 권고·추진하고 있는 만큼 완만한 회복세가 이



작년 정부 SOC 예산 축소 ... 코로나 확산 우려 공사 줄연기·취소
신규 주택 착공·분양 실적 감소 ... 일거리 시급한 상황 악재 겹쳐
업계 "지연됐던 공사 물량 하반기 발주 전망 ... 당분간 지켜봐야"

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착공·분양 실적 동반 감소=도내 주택 착공·분양 실적이 감소한 점도 골칫거리다. 최근 수년간 이뤄진 과도한 주택개발로 미분양·미입주가 심화되면서 도내 집값은 가파르게 추락했다. 공급량에 비해 수요층이 부족했던 탓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신규 주택 공급을 미루고 있다. 건설사들이 공급 속도를 자체적으로 조절해 부동산시장 경기

회복을 꾀하는 모습이지만 일거리가 시급한 건설업계에게는 오히려 악재인 셈이다.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 올 1~5월 도내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주택 착공 실적은 4,061호로 전년 같은 기간(7,120호)에 비해 43.0%(3,059호) 급감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또 최근 5년간 평균 착공 실적(5,998호)과 비교해 32.3%(1,937호) 줄어든 실적이다.

분양 실적도 동반 감소했다. 같은 시기 도내에서 이뤄진 아파트 분양 실적은 총 1,420호로 1년 전(5,047호)과 비교해 71.9%(3,627호) 감소했다. 앞선 2018년(5,605호)보다는 74.7%(4,185호) 줄면서 2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또 이 시기 신규 주택 공급을 예고하는 도내 주택 인허가 실적도 195호 줄어든 5,754호에 그쳤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황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쳐 일선 건설사들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세 둔화로 지연됐던 공사물량이 하반기에 발주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중현기자 jjong@kwnews.co.kr